

우리나라 결핵학의 거목 이찬세 박사

글_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알제 강점기인 1939년 내과의사가 된 이찬세(李煥世) 박사는 결핵전문의로서 또한 대학 교수로서 환자진료는 물론 그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과 순수한 열정으로 결핵학 연구와 후학양성에 헌신했다. 또한 국가결핵대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민간 단체의 리더로서 우리나라 결핵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거목이다.

이박사는 1915년 12월 3일 서울 종로구 권농동에서 부친 이문상(李文相)과 모친 심삼순(沈三順) 사이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다.

이박사가 백일이 되던 때 부친이 미국으로 떠나 어머니와 둘이서 살며 개성에서 호스돈유치원을 수료하고 상경하여 수송보통학교, 1933년 3월 보성중학교(5년제)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자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국립 마산요양원 의무관 시절의 이찬세 박사 (1955년)

이박사의 부친은 1916년 상하이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이승만(李承晩)박사와 독립운동을 했으며 1944년 광복군을 훈련시켜 한국에 침투시키는 OSS(미국 CIA의전신) 독수리작전에 참여했다가 8.15광복 직후 귀국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동안 모친은 일본 동경 양재학원에서 양재기술을 배운 후 정동에 있는 신식양장점에서 일하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1939년 3월 졸업 후 내과학교실에서 1년간 교실원으로 일했는데 당시 내과환자의 절반이 결핵 환자였고 다음으로 기생충, 급성 전염병 순이었는데 특히 늑막염, 복막염도 흔했고 장결핵이나 후두결핵을 합병한 경우가 많았다. 교실원 1년간의 체험은 장차 결핵전문 의사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40년 4월 홍지후(洪芝厚)와 결혼한 이박사는 이어 용산의 철도병원 내과에서 2년, 서울적십자병원 내과에서 2년, 그리고 1944년부터 광복 후 1947년까지 남원도립병원 내과과장과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결핵환자를 진료했다.

1945년 10월 해방된 고국에 30년만에 부친 이문상이 돌아와 가족이 재회했으나 3년 후인 1948년 4월 이박사는 미국의 최신 결핵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마 부친의 영향이 컸으리라 믿는다.

이박사는 미군정(美軍政) 하에서 일제의 잔재가 판을 치던 혼돈의 시기에 일찍 세계에 눈을 뜨고 도미 유학길에 오른 선각자였으며 최초의 결핵의사였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5년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핵의 메카 투루도우요양원을 시작으로 뉴욕의 씨뷰결핵병원, 캔사스시립결핵병원 주임의사, 오크라호마 주립결핵요양원 주임의사를 역임하면서 결핵의 최신 치료법은 물론 결핵전반에 대한 폭넓은 수련과 연구를 했다.

처음 투루도우요양원에 갔을 때 결핵의 획기적 치료제인 '스트렙토마이신'과 '파스'가 새로 나와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씨뷰결핵병원에 있을 때에는 'Wonder drug'이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아이나'의 임상실험도 체험했다. '아이나'는 값도 싸고 먹는 약이고 효과도 월등했다.

바야흐로 결핵의 화학요법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본고장에서 신약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당시 이박사는 미국에 그대로 남아 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국을 위해 결핵퇴치에 일조하고자 귀국을 결심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가족을 불러들여 편안한 장래를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고난에 처한 고국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았다.

6.25전쟁 중인 1952년 11월 귀국길에는 필리핀의 퀘존 대통령의 이름을 딴 퀘존결핵연구원(요양원)에 초빙의사로 머물면서 3개월 연구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퀘존 대통령은 본인이 결핵

을 앓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1000병상이 넘는 미국식 요양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박사의 도미유학 중 그의 부인 홍지후는 625때 시부모님이 이복으로 납치되는 고통을 당하고, 어린 4남매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 대구를 거쳐 마산으로 내려가 피난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1953년 2월 이박사가 귀국하여 마산에서 가족과 6년만의 감격의 재회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국립마산결핵병원 의무관으로 부임하여 환자진료에 임했다. 전쟁으로 환자는 폭증하고 결핵전문 의사가 태부족이었던 그때 이박사의 출현은 우리나라 결핵계에 구원투수와도 같은 낭보였다.

부산대의대 교수로 옮길 때까지 3년간 마산결핵병원 재직 중 많은 일을 했는데 환자의 절대적 신망을 한몸에 지니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진료했으며, 특히 내과의사이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폐절제술과 흉곽성형술을 각각 5명씩 시행했다. 내과적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국내에 그런 폐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당시 전신마취는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었고 국소마취로 열악한 시설과 장비로 폐수술을 했는데 내과의사로서는 큰 도전이었다. 그 후 서울대의대의 이찬범(李燦範) 교수와 진해해군병원 김기전(金紀典) 원장이 미국에서 폐수술을 공부하고 와서 군병원에서 시술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폐수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언젠가 필자가 이박사께 “가장 기뻐던 일이 무엇이었나?” 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기뻐지요. 원래 전공은 내과지만 미국에서 외과적 수술로 폐절제술, 흉곽성형술, 늑막유착박리술을 보조하면서 많이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귀국 후 마산에 있을 때 용기를 내어 폐수술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폐절제 수술을 한 케이스 중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1953년 11월 17일 피난민 소녀의 폐절제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국소마취로 했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자기가 맞았던 링겔 빈병을 달라고 했던 것이 귀엽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당시 난방 시설이 없던 요양원에서 이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형검으로 싸가지고 이불 속에 넣으면 좋은 보온 장치가 됐습니다.” 이박사는 환자진료 못지 않게 결핵지식 계몽에도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필자가 창간한 「보건세계」지에 매월 기고하는 최다 집필자였으며 문장은 알기 쉬운 말로 반드시 한글로 썼다. 이박사는 후에 박사학위 논문도 순한글로 써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죽는 날까지 그 고집은 꺾지 않았다.

「보건세계」창간호에 실린 이박사의 기고 “폐결핵치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알기쉽게 쓴 「결핵의 예방과 치료」는 필자가 집필을 요청했고 편집도 필자가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4판까지 증쇄를 해야 했다. 이것은 결핵전문 의사가 쓴 최초의



박정희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썸을 증정하고 있는 이한세 회장 (1973년 11월 29일)

단행본으로써 환자에게는 요양의 안내서였으며 건강인에게는 결핵예방의 지침서가 되었다.

1956년 4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부산대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역임하고 1961년 11월부터 1965년 3월까지 가톨릭의대 교수를 지냈다. 1965년 4월부터 10년간 종로구 관철동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했으나 1975년 6월 경희대의대 교수겸 진료부장으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으며 1980년 그곳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개원은 이박사 성격에는 맞지 않는데 아마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박사는 1953년 결핵협회 창립 때부터 학술위원, 이사로 적극 참여하여 민간항결핵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1972년부터 2년간 회장을 역임했다. 이박사는 결핵협회가 우리 정부의 결핵정책을 기술적으로 인도해야 하고 또 그 실천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의무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WHO 기술지원으로 보건소망을 통한 국가결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외래 등록치료를 시작했을 때 WHO는 빈곤국에서처럼 부작용이 많지만 값싸다는 이유로 TB의 사

용을 집요하게 권고했는데 이박사는 보사부의 결핵대책위원회에서 단호히 이를 거부했다. 결핵 예산이 적은 것은 국가에서 배정을 안해서이지 나라가 그렇게 가난해서가 아니라며 획기적인 결핵예산 증액을 역설했다.

회장 재임 중 1973년에 제2차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결핵실태와 그 대책을 다룬 「결핵백서」를 처음으로 발행하여 각 정당과 국회와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사, 학교 등에 널리 배포했다.

또한 결핵학도들을 위한 교과서 「결핵」을 공동집필 형식으로 간행했는데 그것은 협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욕과 희망의 산물로서 그의 결핵지식의 총결산물이라고 자부했다.

이박사는 재임 중 받은 보수를 매달 적립했다가 연구비에 쓰라며 회장 퇴임시 결핵연구원에 회사했다. 그리고 공적 업무 외에는 결코 협회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엑스선필름 판독위원으로 협회에 올 때에도 회장업무가 아니라며 꼭 버스를 이용했다.

이박사는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며 평생 검소한 생활로 일관했다. 한 번도 자가용차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늘 걷기를 좋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그리고 항상 해외의 최신 문헌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유익한 정보를 후학들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정년 후에도 1981년 3월부터 1983년 8월까지 마산고려병원 내과과장겸 진료부장, 이어 1983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14년간 결핵협회 부산지부, 부산대동병원,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80세가 되도록 환자진료에 헌신했다. 한편으로 결핵환자의 당뇨병 및 고혈압 발병과 간디스 토마 병발의 빈도와 치료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학회지에 발표도 했다.

이렇듯 어떤 자리나 과거의 명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환자를 돌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었다. 천직에 충실한 노의학자(老醫學者)의 아름다운 환자 사랑이었다.

2000년 6월 파주로 이사가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이박사는 2007년 8월 31일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두달 후인 11월 2일 파주도립의료원에서 큰 며느리와 장남의 손을 꼭 잡은 채 93세에 삶을 마감했다. 유해는 안성천주교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1년여 전 통일천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으며 영세명은 요한이었다.

슬하에는 장남 문기(文基) 연세대공대 명예교수와 큰자부 심성식(沈星植) 전 이화여대 교수, 오하이오주립대 교수인 차남 준기(俊基)와 자부 정윤경(鄭允卿), 장녀 삼희(三喜), 사위 김상훈(金相勳) 뉴저지대 교수, 차녀 인희(仁喜), 사위 김환규(金桓圭) 수원산부인과 원장이 있다.

결핵퇴치와 의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사부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 국민훈장 모란장, 복심자대상을 받았다. †